

친절-생명 중시 ‘전인치료’

부산성모병원, 환자진료 돌입

부산성모병원이 진료개시에 들어가 부산지역 동서(東西)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물론 그동안 불편을 겪던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 상 경 기자 / 부산성모병원

지난 6월 12일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 부산성모병원은 인구 밀집지역이며 대단위 고급 아파트단지가 즐비한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다.

3만 1천여 평의 대지 위에 전체 면적 1만 8,000평으로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최첨단 건축공법으로 서구적 인텔리전트 시설로 단장하였다.

750병상, 수술실 11실 규모로 출발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대형 편의시설까지 확충해 고객만족도에 최역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진료센터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외래전문 진료센터는 소화기센터, 여성센터(유방암클리닉 등), 알레르기센터, 재활의학센터, 호스피스센터, 척추센터, 노인병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진료과를 거칠 필요 없이 질병에 따라 센터를 방문해 진료-기본검사-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과|

부산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유능하고 친절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15명의 임상병리사가 1,000여 가지의 각종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부산성모병원은 일찍부터 검사실 전산화(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 최신의 자동화 검사장비 및 기송관(Air-shooter) 시스템을 더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 및 당일 진료 당일 검사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층과 2층에 외래 채혈실을 두고 유능한 채혈병리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채혈을 위한 환자 대기시간도 줄이는 등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화검사부는 병원 검사실의 자랑거리이다. 몇몇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설치되지 않는 고가의 자동화 장비인 바이엘 사의 'WORKCELL'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여러 생화학검사장비와 면역혈청검사장비가 한 개의 라인에 묶여 One-Stop으로 검사됨으로써 검사의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자유전검사부에서는 각종 결핵, C형 간염 등 감염질환 원인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해 분자생물학적 기법(PCR법 등)을 이용하여 정밀 검사하고 있다. 일반혈액검사 및 뇨검사에 있어서도 자동화된 장비를 도입하여 빠른 결과를 내고 있으며 면역혈청검사부에서는 종양표지자검사, 알레르기검사, 류머티스 검사 등 많은 특화된 검사를 하고 있다.

미생물검사부도 세균동정 및 감수성 검사를 일괄 자동화 장비를 통해 더욱 정확히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결핵균 형광염색기를 도입하여 결핵균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한편,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최신의 장비와 훌륭한 시설도 좋은 검사 서비스를 위한 필요조건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를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봉사의 마음이 먼저라는 생각과 세심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성실함을 잊지 않고 좋은 검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병원입구 안내에서부터 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환자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된 부산성모병원은 PET-CT, MRI, MDCT, ANGIO 등 최신 의료장비였다 IBS, PACS, OCS, WAMIS 등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선진의료 시대를 열게 됐다.

One day-One stop

부산성모병원은 이중길 병원장을 중심축으로 우수의료진이 포진하고 친절마인드를 생명처럼 중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One day-One stop 진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타병원과 차별화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원들이 안고 있는 제 문제도 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우를 위해 가톨릭이념 구현사업으로 접목시켜 물질보다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를 베풀고, 외래는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당일진료 및 검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진료 결과를 보고 입원이나 귀가가 택일되도록 하는 One day-One stop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특수검사는 검사일정을 최소화로 단축시켜 환자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서 환자중심 경영 병원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톨릭이념에 입각한 전인적 치료

|섬김 사랑|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7월부터 '섬김 사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장애인, 임산

부 등과 같이 혼자서 진료를 보기 어렵거나 병들고 소외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서비스이다. '섬김 사랑' 서비스는 일반 환자보다 몸이 더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의 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 직원이 붙어있게 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부는 물론 고객만족팀, 원무과, 자원봉사자 등 전 직원들이 환자가 무사히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갈 수 있도록 정성껏 협조하고 있다.

|수화통역실|

부산성모병원에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가톨릭 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수화통역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접수와 진료를 마친 후 귀가하기까지 원내 수화통역사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 현재 수화통역사가 상주하면서 진료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국병원 중 부산성모병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부산성모병원에서는 현재 전문 수화통역사가 진료의 전 과정에 참여해 안내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상전화기를 갖추고 예약과 상담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질병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당의사로부터 정확한 질병상태를 들을 수 없어 자신의 질병과 다른 진단을 받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15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은 거의 없는데다 청각장애인의 상당수가 의료보호 환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관공서나 보건소 등에서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여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기는 하나 청각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진료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성모병원에서는 현재 다수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원활하게 진료할 수 있을 정도의 수화를 하고, 앞으로 수화교실을 확대 운영해 전 직원이 원활하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성모병원에서는 호스피스센터, 원목상담, 사회사업, 가정간호 등 가톨릭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실시 중이다.

|자원봉사|

부산성모병원 자원봉사자들은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영적, 육체적 봉사로서 전인적인 치료에 한몫을 담당하며 병원 안에서 직원, 의사, 간호사들의 심리적, 육체적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능률적, 효과적으로 실행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성모병원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자원봉사자 자격을 주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병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미사를 시작으로 미사 후에는 격월제 재교육과 월례회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이를 통해 봉사자들의 의견과 문제점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며 병원이나 원목실 계획에 따라 활동을 지시하고 이후의 교육이나 회의 안건을 계획하여 지도신부나 지도수녀의 격려와 훈화를 듣기도 한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은 병원 측에서 마련



한 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불참할 경우 자원봉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부산성모병원은 컴퓨터화 된 최신 방사선 촬영장비와 유방암 촬영기기,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자동 화학분석장비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와 반세기에 걸친 연륜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3시간에 걸친 꼼꼼하고 정밀한 검사로 몸속 깊숙이 숨어 잘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어려운 미세 질병까지도 살살이 찾아내고 첨단 의료장비와 1차 소견을 통해 발견된 이상소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하여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단 진단된 이상소견에 관하여 해당 진료과목의 권위 있는 전문의에게 직접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질병 치료로 질병의 완쾌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성모병원의 종합건강진단은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영구보존하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질병의 재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미술관 같은 병원

부산성모병원은 진료는 물론 성당, 병실, 복도, 화장실 등 병원 어디에서나 미술품을 접하게 되어 있어 예술작품을 통해 마음의 치유까지 받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현재 병원 곳곳에는 가톨릭미술인협회에서 기증한 작품들을 포함해 총 120여 점의 미술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병원 주변에는 이기대공원, 백운포 체육공원, 신선대유원지, 오륙도와 인접해 있어 풍광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으로 환자의 영적 치유에 도움을 준다.

병원 속 옥외정원 ‘햇살 마루’

이 밖에도 부산성모병원에는 원내에 있으면서도 갑갑한



병실을 벗어나 야외에 나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햇살 마루’ 라는 공간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 병원의 경우 여건상 이러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힘든데 ‘햇살 마루’는 환자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쾌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편의시설 및 추모원

병원 지하 1층에는 편의점, 한식당, 제과점, 생과일, 분식, 테이크아웃 커피, 토스트, 의료기기 등 백화점 수준의 대형 편의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다.

부산성모병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대규모 장례식장 ‘추모원’을 들 수 있다. 모두 10개의 분향실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청결한 장례식장 등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장례식장이 없던 부산 남구지역에 추모원이 들어선 것을 놓고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운구에서 발인까지 종합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영정사진과 수의, 조화 등 품질이 보증된 모든 장례용품을 정가 판매하고 있다. 추모원의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식장보다 2~3백만 원 저렴하다.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다. 모두 촌지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가정과 같이 편안하게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고인에 대한 사랑과 유가족의 슬픔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장례식장으로 꾸려 나갈 계획이다. 🐦



이. 중. 길.

부산성모병원장 인터뷰

Q 병원장님의 경영 철학 및 경영 기본 이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투명한 경영, 그리고 환우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환자중심 병원을 만드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이밖에도 병원은 육체적인 치료를 행하는 곳이지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Q 새로 개원한 병원의 특징, 그리고 경영전략은?

부산성모병원은 병원의 기본에 충실한 병원 즉,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쾌적하면서 깨끗하고 친절한 환자중심병원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료 선진화를 이루고 최첨단 시설을 구비해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Q 향후 병원의 (시설, 체계, 인력, 장비 등) 발전은?

최근 개원한 우리 병원은 시설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선진화를 이뤘습니다. 이미 대규모 최신식 장비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One-Stop 진료와 전문화된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 각 센터와 클리닉에서 필요한 장비를 계속적으로 도입해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료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향상된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있는 사업은?

우리 병원은 진정한 의미의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진료를 보기 힘든 환자의 경우 1 : 1로 직원을 동행시키거나 진료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병원과 차별되는 환자를 위한 의료사목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환자를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정신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기만 하면 친절과 정직, 선교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의료현장은 복음화사업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입에서 '천주교 병원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감탄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병원의 중점 육성 부문과 이유는?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소외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재활치료라든가 수화통역을 통해 그분들로 하여금 양질의 치료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센터와 클리닉을 활성화해서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정확한 진료와 치료도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지역 우수병원들과 협약 시스템을 체결해서 지방에서도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의 병원들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Q 지역사회에서의 병원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이유, 혹은 병에 대한 무지로 병원을 찾기 힘든 소외 계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국가·지역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대형병원들이 떠안아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은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질병에 대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찾기 힘들다면 우리 스스로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진료 외에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